

위조신분증 잡아낼 '암행어사' 출두요

보임테크놀로지 신분증 감별기 성인정보에 타인 도용도 막아줘 청소년 출입금지 매장 판매 급증



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SW)를 결합한 제품이다. 신분증을 스캔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NICE)에 전송, 저장된 성인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가려낸다. 지문인식기로 스캔한 지문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 타인 신분증 도용도 막아준다. 2초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위조신분증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업소가 증가하면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가려주는 신분증 감별기가 인기다. 술집이나 모텔 등 주로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판매가 금지된 매장을 중심으로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특수 스캐너 및 신분증 감별기 전문업체인 보임테크놀로지(대표 김상범·최오승)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300~400대 수준에 머물던 업소용 신분증 감별기 판매량이 올해 들어 월 1200대 이상으로 3배가량 늘어난 데다 금융권을 비롯한 신규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올해 판매량이 2만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가 판매업체 엠포를 통해 '암행어사·사진'라는 명칭으로 공급 중인 신분증 감별기는 자체 개발한 신분증 스캐너와 생체지문 스캐너에 신분

있고 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제품은 특히 스캔한 신분증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NICE 정보와 대조한 뒤 바로 삭제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암호와 및 보안 관련 내용은 안전행정부에 인증을 요청한 상태다.

보임테크놀로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진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분증 위조가 쉬워져 앞으로 신분증 감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상범 사장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거나 출입을 허용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협박하거나 신고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매장이 많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청소년과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며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하면 위조 신분증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 찾는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아란타가 쓰리제이커뮤니케이션, 한솔네트웍스와 손잡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지원 솔루션인 '스마트에버'를 출시했다. 지현철 쓰리제이커뮤니케이션 대표와 윤상권 아란타 대표, 허혁수 한솔네트웍스 대표(왼쪽부터)가 솔루션 개발 및 판매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부모 손바닥 안에 있죠"

'아란타' '쓰리제이...' 솔루션 개발 원격 기능 제어·동학교 체크 가능

스마트폰이 과연 청소년의 필요악일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중독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80.7%에 이를 정도다. 스마트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동시에 청소년 공부를 방해하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육 솔루션 기업과 보안 솔루션 기업, 판매기업이 손잡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지원 솔루션인 '스마트에버'를 출시했다. 주인공은 교육용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 기업인 쓰리제이커뮤니케이션과 스마트폰 원격제어 및 보안 솔루션 기업인 아란타, 교육전문기업 한솔교육의 자회사인 한솔네트웍스다.

스마트에버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학교(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에버 앱을 설치한 후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교사와 부모에게 알려주고 수업이 시작되면 긴급전화와 받기를 제외한 스마트폰 기능이 자동 제어되고 수업이 끝나면 해제된다. 앱은 학생이 강제로 지울 수 없다. 또 교사가 진도에 맞춰 입력해 놓은 문제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이 테스트 도구로 변신한다. 시험 종료와 함께 채점과 정답률 분석도 완료된다.

3사는 이달부터 서울 시내 3개 중·고등학교에서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까지 학부모 앱을 개발·완료해 2학기에 맞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윤상권 아란타 사장은 "스마트폰 하나로 학생 등 학교뿐만 아니라 시험도 볼 수 있어 학생관리는 물론이고 성적관리도 가능하다"며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교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KES 직원들이 여주연구소 차폐실에서 업계 최고 무선통신·전자파 분야 규격·인증시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짐을 외치고 있다.

무선통신·전자파 규격 시험기관으로 10위권 진입 쾌거

e프런티어 탐방 KES

2011년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매출 45억...2017년 100억 목표

KES(대표 김영래)는 무선통신·전자파 분야 규격·인증시험기관이다. 1985년 두루통상이라는 개인회사로 시작해 1996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초기에 해외규격인증 대행과 전자파장해(EMD)검정 시험 업무로 시작해 시험·인증 분야를 무선통신(RF 통신), 전자파적합성(EMC), 전기안전, 기계안전, 철도 등으로 확대했다.

김영래 사장이 합류한 2008년 상호를 두루케이이에스로 변경하면서 투자를 본격화했다. 전자파 연구소에서 사용하던 챔버를 여주연구소로 이전 설치하고 시험장비도 꾸준히 늘렸다. 챔버 이전은 K

ES를 제대로 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됐다. 2010년에 지금의 KES로 바꿨고 2011년 미국 Timco(TCB)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았고 여주 연구소 실험실을 증축했다.

KES는 김영래 사장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시험·측정 장비 분야에 50억~60억원의 투자를 했다. 올해 45억원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에 비하면 5~6년 사이에 상당한 투자를 한 셈이다.

김영래 KES 사장은 "그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22개 이르는 민간시험기관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며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매출액과 수익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동안 믿어주고 따라 준 직원에 보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KES는 민간시험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하다. 사장과 직원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꿈꾸고 목표를 이룬다

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KES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워크숍을 회사 목표와 실적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실적과 이익 등 정보를 공유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KES의 초창기 멤버 20여명은 주주이기도 하다.

KES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회의하면 'KES 행동원칙'을 낭독한 다음 박수치고 마무리한다. 행동원칙에는 도전, 열정, 배려, 존중, 주인의식, 전문가 정신, 약속, 고객 등의 키워드가 담겼다.

KES의 비전은 '규격업계를 선도하고 고객과 회사, 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다. 사업도 앞으로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신뢰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ES는 2017년에 매출액 100억원의 달성해 업계 1위에 오르고 코스닥에도 상장한다는 포부다.

여주 =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사진 =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도전정신 무기로 전기차·의료 분야까지 진출할 것"

김영래 사장

"당시만 해도 모두가 안 될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김영래 KES 사장은 안양에 있던 전자연구소 챔버를 여주연구소로 옮겼던 당시를 회상했다.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자파를 흡수하는 두께 60mm짜리 벽을 통째로 잘라 여주연구소에 재현했다. 그는 "도전정신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였고 우리나라 시험기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전과 열정은 김 사장이 늘 강조하는 덕목이다. 김 사장이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초기에는 투자도 하고 힘들었지만 지난해 매출액 3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45억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분야도 EMC·무선통신·전기안전 외에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작할 때는 지명도 높지 않아 지원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수인재가 몰려드는 회사가 됐다"는 김 사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차 있다.



'가격·크기' 짝 짝 휴대형 배터리 성능진단기

AB셀텍, 통신사 기지국 테스트용 공급

배터리팩 및 배터리 성능진단기 전문업체인 AB셀텍(대표 장현봉)은 150만원대 휴대형 축전지 간이 진단기를 개발, 전국 각지의 통신사 기지국 배터리 테스트용으로 공급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축전지 간이 진단기(모델명A

B-SSBT-48-100)는 대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배터리 성능진단기 시스템을 간소화해 이동하며 배터리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장비다. 부하기와 컨트롤러 및 측정용 셀프로브 등을 하나로 통합해 392×180×325mm 크기로 줄였다. 무게는 10kg으로 별도 제공하는 배낭에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다.

배터리 개발 방식이 아닌 스트링 방식으로

전체 전압과 개별 배터리 전압을 측정, 5초 이내에 불량 배터리를 검출할 수 있다. 예비전원 가동여부도 파악해 준다. 다양한 환경에 맞출 수 있도록 방전시간을 1~20초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배터리 측정범위는 0~20V까지다.

장현봉 사장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에 100대를 공급하기로 계약, 최근 검수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 중에 공급기로 했다"며 "휴대형 간이 진단기는 통신사에 꼭 필요한 장비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

<39> 모바일에코

모바일 라우터 日 도코모 수출 성과

모바일에코(대표 김대현)는 지난 2012년 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했다. 'LTE 기반 와이파이(WiFi) 무선 모바일 라우터'를 개발하는 과제를 진행했다. 개발한 모바일 라우터는 지난해 초부터 일본 도코모 MVNO에 납품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는 LG유플러스에도 공급한다.

모바일에코는 이 제품으로만 지난해 35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이들 업체에 공급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과정에서는 7명의 R&D 전문인력과 두 명의 생산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거뒀다.

이 회사 주력제품은 3G와 통털에블루션(LTE) 기반 USB모뎀과 사물통신(M2M)용 내장형 모듈, 산업용 외장형 모뎀, 가입자택내장비(CPE) 등이다.

이번 기술개발과제에서는 켈립 모뎀칩 'MDM 9215'를 이용해 LTE 또는 WCDMA 통신방식으로 받은 데이터를 802.11b/g/n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 동시에 최대 10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형 이동단말기 개발에 나섰다. 이동 중에 노트북PC나 스마트패드 등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개발한 모바일 라우터는 크기가 70×70×16.6mm에 불과하다. WCDMA B1 2.1GHz 및 B6 800MHz와 LTE B1 2.1GHz, B19 800MHz, B21 1.5GHz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IEEE 802.11



아드반테스트코리아 'TAS7400T'

수준으로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제품 가격은 대당 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에 이번 신제품은 대당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사용자가 사용환경에 맞춰 레이저 소스와 디텍터 모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샘플 가열 및 저온유지 등 액세서리도 측정 환경에 맞춰 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모바일에코가 일본 도코모 MVNO에 공급한 LTE 모바일 라우터 'ME-C30J'

b/g/n 기능도 제공한다.

일본 도코모 MVNO에 공급하는 'ME-C30J'는 현지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춰 전류소모를 최적화해 연속 9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전력송신 시 표면온도를 48도 이하로 유지하는 요건도 충족시켰다.

LG유플러스에 납품하는 'ME-Y30K'는 LTE 800MHz와 2.1GHz 대역을 동시에 지원한다. USB 태더링 기능을 탑재하고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터리 상태와 안테나 상태를 표시해주는 등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